

7. 구원의 계획에 대한 대 예언

2012. 2. 12.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동티난 사실을 근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계획과 예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대 예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예언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애청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겔18: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 지난 시간에 예정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중에 시간이 되어서 더 나눌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더 말씀은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래야겠지요. 예정에 대한 문제는 주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적 구원이 예정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잠깐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문제를 연구하면서 부산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 주권이 있다면 개인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데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뜻이지 멸망시키려는 것은 결코 그분의 뜻이 아니지요.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멸망은 스스로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으로 멸망시킨다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사실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인지요?

답: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미 처음에 우리가 나눈 “칠십생자비오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사람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표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요 진정한 뜻이 아니라면 굳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씀 하나님을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그때 아담을 죽게 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멸망시

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으면 소위 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예정되었다는 이론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죄인은 마땅히 멸망해야 한다는 인간의 권선징악적 도덕적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사람은 죄인에게 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말씀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까지 죄인을 용서하여 살리시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려는 의지의 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26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깨닫도록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에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3.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정이 없습니까?

답: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정이 있지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너는 멸망 받도록 정해져 있고, 너는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식의 개인 예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희생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한 그 사실 때문에 형벌로 구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에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산 자 중에 두실 수 없으니 장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정처럼 보이는 말씀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예정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니까 구원받을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구원과 멸망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방법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방법을 거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4.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니 강박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어떻게 항의하겠느냐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답: 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런 사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구원받을 것과 받지 못할 것을 예정한 사실과 상관없다는 것을 아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를 삼는 것과 관련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복음을 전파하는 그릇, 도구를 선택하

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도구로 선택된 것이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 는 것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애굽 왕 바로 이야기일 것인데, 그 말 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요. 로마 9:17을 읽어보실까요?

[롬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 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 말씀 보십시오. 바로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 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 선택에 바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면 바로도 구원을 받았고 애굽고 구원의 큰 은총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선택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결국 그와 애굽은 큰 재앙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 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졌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전파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야곱을 예정했다는 말이지 에서를 멸망으로 예정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욥기에 나타난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는 데만 사람이고 데만은 엘리바스의 아들로서 한 족속의 족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에서 족속이 확실합니다. 그나스도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창36:11) 갈렙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는 유다지파에 귀화한 귀화인입니다. 얼마나 독실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의 예 정은 그릇에 대한 예정이지, 구원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롬9장에서 바울이 그릇에 대하여 말하지요. “롬9: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 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면 그릇, 곧 일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사45:1) 그는 유대민족을 해방하는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구원이 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 고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마르둑을 경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예 정을 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나 긍휼의 그릇이나 그릇으로 쓸 것은 쓸 분이 자기 뜻대로 골라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릇이 된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그릇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가 그릇 노릇을 했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겸손한 심정으로 살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5.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상당히 밝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 문제에 대한 개 인적 예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정된 것입니까?

답: 개인적 예정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예정에 들어온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포함된 구원과 생명의 주로서의 기념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방법은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었지요. 부모라는 칭호에 자녀에 대한 책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정한 구원의 방

법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요청도 아니었고, 구원해야 할 일이 발생할 때 그 이름 안에 포함된 구원의 길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성경구절들을 한 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들에도 이제는, 또는 자기 때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는, 또는 자기 때의 라는 말씀들이 바로 구원할 일이 발생할 때를 뜻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처음부터 아셨지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정이 아닙니다. 우선 성경 구절부터 찾아보고 말씀은 계속합시다.

[딤후1:9,1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1:2,3]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벧전1:20]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들이 다 구원에 대한 사실은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나타난 것은 이제는, 또는 자기 때에, 또는 말세에 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는, 자기 때에, 말세에 라는 것이 구원의 필요가 생겼을 때를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이런 표현들을 그때 타락할 것도 예정하시고 구원할 것도 예정하시며, 또 구원받을 개개인도 예정했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들과 여호와라는 칭호에 있는 기념에 대한 말씀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런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가 할 모든 일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이 이미 다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다 오직 “예수 안에”라는 것이 항상 전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미 말했듯이 다 “예수 안이” 예정인 것입니다.(엡1:1~6) 그러나 여호와의 칭호의 의미를 안다면 굳이 예정이다 예지(豫知)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일 뿐이니깐요. 그런데 그 방법은 말씀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행2:23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사망이 된 사람의 사망을 처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었습니까?

6. 예, 좀 어렵기는 해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나님이 꼭 죽으셔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이 문제는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하고, 좀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이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속의 경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마 몇 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먼저 루시퍼의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실을 이야기 하도록 해봅시다. 이미 루시퍼의

행태는 자세히 이야기 했으니까 이야기 한 부분을 다시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은 부분은 이야기해야 하겠지요. 루시퍼에게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했지요. 에스겔 28:14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덮는 그룹으로 임명한 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나님도 기름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편 45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칭호 중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시편 45:7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고 말씀하나님은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기름 부었다는 사실만 크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나님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22:16에 말했는데, 루시퍼도 계명성이라고 했으니 말씀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이름을 얻은 것 아닙니까. 외모도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말씀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나님은 집회의 산에서 열리는 여호와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자기도 거기 참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나님께서 루시퍼는 피조물인데 말씀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특별히 기름 부어 덮는 그룹을 삼으면서 계명성이라는 이름까지 주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설명하셨겠지요. 그러니까 말씀하나님은 창조주요 루시퍼는 피조물이라고 알아듣도록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때 루시퍼가 그 말을 따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말씀하나님께 창조주로서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는 증명을 해보라고 대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싸움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계시록 12:7~9의 내용입니다.

[계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미가엘은 바로 말씀하나님 자신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거든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회의 산에 보좌를 베풀려고 했잖아요. 말씀하나님께서 알만큼 말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으니까 미가엘로 루시퍼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말씀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지구로 쫓겨 와서 지구의 첫 사람을 유혹하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루시퍼가 말씀하나님께 정말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지 증명해보라고 도전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말씀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되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에는 루시퍼의 이런 도전에 대한 대답도 들어 있고, 우주 거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없애는 효과도 들어 있고, 이 지구의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처음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회복도 들어 있습니다.

7. 목사님 말씀은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했고 죽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가 대화할 내용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 봅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의미와 이유를 성경에서 대답을 들어봐야 하겠지요. 용과

싸운 미가엘이 말씀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미가엘은 싸움하는 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브리엘은 문천사장이라고 말하고 미가엘은 무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천사장이라는 칭호를 가진 분은 미가엘 뿐입니다. 이 미가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배려한 계시가 바로 계12:1~7입니다. 거기에는 창세기 3:15과 똑 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뱀, 여자,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3:15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요, 계12장도 1절부터 읽으면 여자, 용, 여자가 낳은 아들 이렇게 나오지요. 똑 같은 구성입니다. 그런데 창3:15에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울 것이라고 했지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12장에 용과 싸우는 분이 미가엘인데, 6절에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과 싸우실 분입니다. 그런데 7절에 용과 싸우는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용이 바로 옛 뱀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미가엘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동일 신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시 장면입니다. 그분은 시편 24편에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용과 싸워 이기신 분이지요.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말씀하나님께서 사단이 된 루시퍼와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기시고 자신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우주 거민들에게 진정한 이해를 제공하시고 화평과 사랑을 드러내시며 지구의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것이지요. 애청자들께서도 이 엄청난 사실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